

**한국 근대가구의 변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of Modern Furniture in Korea

김정근*/ Kim, Jung-Ke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rrange the modification and the changes of modern furniture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style of traditional furniture was influenced by changes in class structure and social system, an increase in Honsu norms in terms of both quantity and quality, family, marriage, housing patterns, and behavioral patterns

etc.

2) Modern furniture in Korea divided into two groups, one was traditional group of innovative function and scale, the other was eclectic group of Japanese or Western style.

3) Due to the Honsu norms, Wedding furniture items became more various in kind.. Jangrong(幪籠) has been an essential Wedding furniture items since modern

키워드 : 근대가구, 양식, 장롱

I. 서론

우리나라의 근대가구는 강제성을 띤 일본문화의 주입과 외래 주거 문화와의 복합으로 가구의 양식적 특징이 전통가구에 복합되고 혼조 양상을 띠며 따라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대가구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해방 이후, 현대사회의 대량생산된 가구와 상업주의에 밀려 도의시됨에 따라 근대가구에 관한 관심은 매우 저조하고 오늘날에는 남아있는 자료조차 희귀하여 우리나라 가구사의 중요한 전환점인 근대 가구양식이 명확히 규명되지 못하는 실정으므로 근대가구의 양식적 특징을 규명하는 연구는 시급하다고 하겠다.

인류학자 바르노(V. Barnouw)는 문화를 '한 사회 전체가 채택하고 그 공동체가 선호하여 결정한 형식으로, 그 구성원들에 의해서 공유되고 학습된 행동이 문화이다.' 라고 정의하였다. 가구나 생활의 기물은 생활을 위한 도구로서 인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인간 역사와 함께 변천해오며 따라 가구는 문화적인 전통과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 시대의 가구양식은 시대성, 국제성, 민족성, 사회성 등이 복합되어 나타난 결과(민경우, 1995)라고 하겠다.

따라서 문화적인 전통으로서 근대가구의 연구는 근대 사회와 당시 생활 문화와 관련이 깊다는 관점에 따라 조선시대 이래 발전된 전통 가구 양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즉 근대가

구는 조선시대 가구양식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근대화되었고 현대가구에 이르렀다는 관점에 따라 전통가구와 비교해 어떻게 변모하였으며 그 변화 요인이 무엇이며 이에 따른 근대 가구의 양식적 특징이 규명되어야 하겠다.

지금까지 근대 가구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몇몇 연구에서는 근대가구의 물리적 특징을 중심으로 고찰되었으나 조선시대와 차별되는 근대가구 양식의 변용과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근대가구는 조선시대 전통가구와 명확한 구별을 이루지 못하며 오늘날 현대가구로의 변천과정이 제대로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근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가구의 변화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조선시대의 전통가구와 다른 근대가구의 특수성과 양식적 특징이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1. 연구내용 및 방법

근대가구 연구의 시대구분은 1876년 조선이 일본과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함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국제관계 질서를 갖게 되었고 '개항'에 의해 근대적인 국가 체제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게 되었으므로 개항(1897년)이후 부터 1945년까지를 근대로 하였다.

연구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는 먼저 조선시대 가구의 조형적 특징을 간략히 살펴 보며, 근대의 시대적 특징이 일시적으로 변모된 것이 아니라 전통가구의 변용을 통해 근대적 양상을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근대의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른 변화 양상을 문헌연구 방법에 의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 대표적인 근대가구의 종류와 기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남아있는 근대가구

* 정회원, 울산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조교수

** 이 논문은 1997년도 울산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의 유구를 찾아내어 조사함으로써 그 양식을 규명하고자 한다. 근대 가구의 종류 및 기원을 파악하기 위해 고문헌, 신문등을 조사하였으며 근대가구의 조형적 특징은 관련 논문, 공예 및 민속관련 사진 자료와 문헌(조선공예전람회도록,1992;온양민속박물관,1995;공예,1992;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특별전도록,1980;1989)을 조사 분석하였다. 수록된 가구 중 연대가 1900년 이후로 표기된 가구 총48 사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면담조사는 서울과 경상도의 하회마을을 선정하였고 실측 조사는 하회마을로 한정하였다. 이와 같이 한정된 이유는 현대의 영향이 적고 근대적 생활양식이 유지되어 유구의 발견이 용이하기 때문이며 문헌연구와 면담조사를 병행한 것은 선행연구가 많지 않고 문헌자료에 나타난 근대가구가 전통가구와 혼용되어 구분이 명확치 않았기 때문이다. 또 문헌자료의 제작연도도 분명치 않으므로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고 근대가구의 변용과 양식 특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면담조사의 현지 연구법을 병행하였다. 면접 및 조사대상은 서울지역 17명, 경상도 지역 15명으로 총 32사례이었으며 근대가구 소유 유무, 구입년도와 사유 등을 조사하고 근대가구 8사례를 발굴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분석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분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을 배경적인 요소로서 의미있게 해석하였다.

근대가구의 종류는 자료의 한계로 장롱, 장, 의거리장, 화장대, 반다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조형요소는 전통가구의 조형성과 심미성이 입면구성에 집중되어 있으며(배만실,1975) 입면구성의 분할이 실용적 기능성과 조형적 심미성의 반영이므로 선과 면의 크기, 전체적인 규모와 함께 재료, 금구장식, 문양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가구 실측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진촬영, 스케치를 병행하였고 실측된 가구는 도면화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조선시대의 전통가구

조선시대의 가구는 자연환경과 조선시대의 사상적, 정치적 배경인 신분제도 및 유교사상 영향이 지대하였다. 내외법은 조선시대의 주택과 가구에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남녀의 성별에 따른 규범적 가치관으로 인해 안채, 사랑채의 구분과 함께 안방용과 사랑방용 가구의 종류와 장식에 차이가 있었다.

전통가구는 주변의 자생 목재를 원료로한 순박한 아름다움인 자연미가 특징이며 자연목재의 시각적 효과를 중시(배만실,1988)하였다. 가구의 형태는 정방형과 장방형으로 구성되어 강직한 직선과 면을 반복하는 구성미가 특징으로 머름칸, 문짝, 서랍, 쥐벽칸 등이 연속되어 가구 전면이 부분적인 공간구성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구성은 정방형의 비와 황금비가 많고 정연한 대칭적 질서가 특징이다. 가구의 크기는 온돌방의 좌식 기거양식으로인해 문갑, 반닫이는 좌척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수장가구인 장, 농, 탁자류는 입척을 기준으로 제작되었다. 가구의 장식적 특징은 목리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특색으로 도장에 있어서도 자연 목리를 살리는 특수한 도장법

을 사용하였으며 조선시대의 엄격한 신분제로 주칠과 흑칠 등의 사용은 왕족 등 특수계층에서만 사용하도록 금지되었다.

검소하고 소박한 유교의 생활화를 위해 철, 주석, 백동 재료의 금구장식은 장식성 보다 구조적 기능을 중시하는 경향이였으며 문양도 인간의 정서적 욕구의 상징을 표현하여 富, 貴 등 행운과 장수를 염원하거나 父家중심적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多男을 상징하는 문양을 사용하였으나 화려하지 않고 소박함이 특징이다. 가구의 구조는 몸체와 다리로 이루어지며 가구의 뼈대를 이루는 골재와 몸체를 이루는 판재 및 천판과 측널로 구성되었고 넓은 판재의 수축과 팽창에 따른 결점을 보완하는 특수한 결구로 제작되었다.

2. 선행연구 고찰

지금까지 전통가구 관련 연구는 그 조형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김경옥,1972;배만실,1974; 이풍미,1975;김성희,1980;이은희,1981;김유순,1985;)가 대부분으로 자연과 주거환경의 영향에의해 형태, 재료, 장식, 구조적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대상은 주로 박물관이나 개인 소장 수집자료에 의해 분석되었고 전통가구와 그 외형이 유사한 경우 그 제작연도가 1900년 이후인 경우에도 모두 전통가구로 분류됨으로서 근대가구를 구분하지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근대가구 양식은 전무한 것으로 인식되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통시대적인 가구의 역사적 측면이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근대가구의 연구는 주로 그 유형적 변화를 고찰한 몇몇 연구(서동성,1991;송호정,1989; 신영식,1990;)가 있는데 근대가구의 양식적 특징에 대해 첫째, 식민지 정책에 따라 전통가구는 모방이나 답습이 이루어지고 그 발전이 정체되고 후퇴되었다고 하였으며 둘째, 일본가구 특징이 혼합되거나 과도하게 사용된 양식(신영식,1990;이진영,1979)이며 셋째, 상품성만 강조됨에 따라 재료의 질이나 조형성은 무시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사진자료에 근거하여 鮮展의 작품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전통가구와 근대가구의 차이점을 통해 근대 가구 양식적 특징을 밝힌 이진영(1979)의 연구에서는 근대가구 양식을 전통성을 계승한 가구, 전통가구와 일본가구의 절충형식, 일본가구형으로 분류하였다. 장롱을 중심으로 근대가구의 변천을 고찰한 연구(신영식,1990)에서는 전통유형, 수입서양가구, 선전기, 시중가구 양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근대가구의 연구는 대부분 선전기구를 중심으로 분석(임승택,1987)되었으며 그 양식적 특징을 전통가구와 일본가구가 혼합된 양식 혹은 과도기적 양식(권장,1991;이성규,1994)으로 규명하고 있다.

연구의 대상이 공통적으로 선전작품을 주대상으로 함에 따라 일본의 영향이 큰 가구가 분석되어 우리나라 근대가구 양식으로 일반화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으며 전통가구의 변화요인이나 특징, 근대가구 발생 이유와 발전과정이 설명되지 못함에 따라 전통과 현대를 이어주는 근대가구 양식을 밝히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III. 근대가구의 변화요인

본 연구에서는 근대가구의 변화 요인을 크게 정치사회적 변화, 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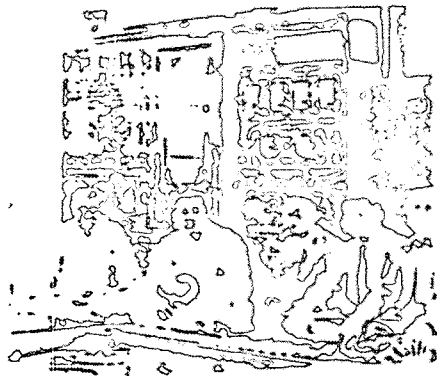
수규범과 혼례가구, 의생활의 변화, 목가구 산업화, 여성가치관의 변화, 도시화와 주거생활의 변화, 기거양식의 변화로 나누었다. 이러한 변화요인에 따른 근대가구의 발생과 양식적 특징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변화와 가구

개항이후 조선시대의 신분관계는 제도상으로 거의 차별성이 소멸되었으나 신분개념 대신 계급개념이 새로이 대두됨에 따라, 관직(戶籍), 혈연(門蔭)의 중시에서 혈연(通婚圈, 家門), 직업(土地所有)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바뀌게 되었다(홍형욱, 1992).

신분제 변화 이후의 상민, 천민 중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농민들은 또 다시 피지배층으로 전락하는 한편 새롭게 경제력이 있는 계층이 부상하였다. 신분제도 폐지로 인한 계급구조 변동과 체제 변화에 의해 새로운 계급질서가 등장함에 따라 근대 사회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었고 왕권의 몰락과 체제변화로 인해 일부 왕족과 귀족계층에만 허용되던 홍칠과 주칠가구 사용에 관한 금제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경제력이 있는 상류층을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나전칠기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상류층을 위해 제작된 나전칠기 가구는 자개를 가구면적 전체에 뒤덮듯이 장식(정석, 1993)하였고 기술적 어려움에 따라 고가품이었다. 나전칠기 가구의 보급은 서민층을 위한 가구에도 영향을 주어 장, 룡 등 가구의 문판에 자개로 초화문을 장식하는 등 그 사용이 넓어져 근대가구는 조선시대와 달리 상당히 화려해졌음을 나타내준다. <그림1>에 의하면 전통가구인 장, 룡 및 탁자를 절충한 대형가구에 거울을 부착하고 문판과 등자 모두 나전을 시문하였음을 통해 상당히 화려해졌음을 보여준다.



(그림1) 나전칠기 가구에 시문되어 화려한 심층장과 장롱
1938년 보화각 개관 기념일 자료: 간송문고(1991:98)

2. 혼수규범과 혼례가구

신분제의 변화와 함께 조선시대의 혼수 禁制가 사라지게 되면서 근대의 혼수 마련은 질적 양적 증가가 나타났고 이는 혼례가구 보급과 근대가구 양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혼수의 증가는 조선 후반기 생산증대(이태진, 1972)로 인한 부의 증가 영향도 있었으나 무엇보다 과도기의 불안정한 사회분위기와 가치관의 붕괴로 인한 영향이

크다. 그러므로 상류층에서나 마련되었던 혼수로써의 혼례가구는 조선시대 후반기부터 급증하여 근대에 이르러서는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혼수 증가로 야기된 혼례가구의 보급, 그중에서도 대표적 혼례가구인 장롱의 등장과 발달은 근대가구의 양식의 특징을 나타내준다.

(1) 혼수규범과 장롱

근대 혼례가구인 장롱의 등장과 발달은 혼수 마련 중 의류와 이부자리 마련의 양적 증가가 혼수규범이었던 근대사회 특성과 관련이 크다.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의생활편(1985)의 이난초 할머니의 증언에서도 근대 초기부터 의복과 직물의 혼수 양이 얼마나 크게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준다. 할머니 혼수중 의류는 한삼모시 적삼 한 죽, 색동저고리 두 개, 삼회장 저고리 세 개, 솜저고리 두 개 등 모두 열 일곱개의 저고리를 지어 왔다고 하였다. 또한 다홍치마 두 개, 검은 치마와 옥색치마 각각 한 개, 팽목치마 네 개, 비단치마 두 개 등 모두 열 개의 치마를 장만했다고 하였다. 그밖에 모시 고쟁이 세 개, 단속곳 네 개 등 열 세 개의 속곳까지 지었다고 하니 거의 한 평생 입을 옷을 마련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의류 장만의 혼수규범이 증가한 것은 근대의 경제적 피해, 몰락부족과 정치 사회적 혼란을 반영하여 나타난 현상이며 조선시대 이래 피륙과 의류마련의 규범이 근대에도 지속하여 작용하였기 때문이며 한평생 입을 의류의 혼수장만이 규범화 됨에 따라 이를 수장하는 혼례가구의 중요성, 대형화 요구가 커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조선시대 이래 초대형 가구인 장롱의 등장과 발달을 야기하였다.

근대 후반기에는 이부자리 사치¹⁾가 또한 극심하였다. 이는 조선 후반기 부터 상류층의 이부자리 사치가 일반에게 보급된 것으로, 근대 후반기에는 여러채의 이부자리를 겹겹이 쌓아 유리를 낀 장롱에 비치어 보이도록 하는 것이 혼수 자랑거리로 등장하였다고 하여 수장가구의 대형화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내준다. 이러한 영향으로 장롱은 이불장, 옷장등으로 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근대 혼수 증가는 혼례가구의 일반화의 요인이 되었으며 새로운 가구 양식인 장롱의 등장을 이루었고 의류, 이부자리에 집중되는 혼수증가로 옷장, 이불장, 서랍장 등, 세분화되는 근대 가구 발달의 계기가 되었다.

(2) 혼례가구의 보급

창원지방 서민층의 혼례가구와 기물을 조사(이종석, 1993)한 바에 의하면 지장紙幘, 싸리채장, 세죽오합상細竹五盒箱, 오색피죽 반진고리, 대야, 오강, 식기대접을 마련하였고, 일반 농가에서는 의함, 버들고리, 반진고리를 마련하였다. 면접조사에서 홍정임 할머니는 근대 초, 어머니 혼례시 마련한 혼례가구가 농이었다고 하였으며 아무리 없는 처지에도 1쌍의 농을 마련하여 신랑측에서 보내준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넣어가지고 왔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근대 전반기는 조선 후반기 부터 이어져온 장과 농이 서민층의 혼례가구로 널리 보급되었음을 보여준다.

개항이후 상류층의 혼례가구를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는

1)이정순 할머니와의 면담에 의하면 해방되기 전의 이부자리 사치가 극심하였다고 함.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에 소재한 운조루雲鳥樓의 구대손 유종숙댁의 혼구물목(민속박물관 학술총서,1988)이다. 여기에는 혼례 각 절차에서 마련된 혼수의 품명, 수량, 가격이 기록되었는데 시기별 종류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유씨댁 혼구의 종류 및 가격

년도	이름(성별)	가지수 및 가격		우귀혼구목록	비고
		납폐혼구	우귀혼구		
1920	유희교(남)	54종, 308원 99정	42종	장봉, 함, 은지환, 피륙, 의류, 화장품	납폐품목: 피륙, 은비녀 등 38종
1923	유보업의 장녀	54종, 93원 13진4리	31종, 90원7진	장봉, 반상기	
1928	유희효(남)	유희교와 유사	47종	화류장롱	

자료 : 민속박물관 학술총서(1988: 96-108), 구례운조루 본 연구자가 발췌하여 재정리

혼구물목의 종류를 살펴보면 신부가 장만하는 우귀시 혼수는 장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밖에 납폐의 목록에 의하면 장롱이 포함되어 있어(민속박물관 학술총서,1988) 근대 전반기 상류층의 혼례가구로 장롱의 마련은 살림살이일 뿐 아니라 소중한 예물의 의미도 지녔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당시 운조루는 상류층이었으나 향촌으로써 전통주택 양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현대적인 장롱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음에도 혼수물목에 대대로 혼례장롱을 마련한 것으로 보아 장롱²⁾은 개항 이후 생활양식의 변화와 근대화의 새로운 사조에 대응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는 새로운 가구양식이라고 하겠으며 혁신적인 특징으로 새생활을 시작하는 신혼가구로 부터 급속히 파급된 특징을 보인다. 정선旌善아리랑에 '오동나무야 자두나무야 너 잘 크거라 큰애기 시집갈 때 오동장롱 짜 줄게' 라고 하여 우리나라 서민층의 애환을 담은 민요에 장롱이 등장함을 통해 상류층의 혼수품목으로 제일 값지고 핵심적인 가구(이종석,1993)로 마련된 장롱은 근대 후반기에 여유가 있는 서민층에게까지 널리 파급 되었음을 나타내준다.

(3) 장롱의 기원과 특징

장롱은 현대의 사전적 의미로 '장과 룡의 총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900년 이후로 연대가 표기된 문헌과 사진자료를 근거로 하고 면담조사를 보완하여 장롱의 기원과 조선시대와 구별되는 차이점을 조사³⁾, 분석한 바에 의하면 1920년 운조루(민속박물관 학술총서,1988)의 혼구물목에 장롱으로 표기된 것은 연구자가 발견한 장롱의 사용을 문서로 발견할 수 있는 최초의 것이었다.

근대 장롱의 특징은 조선시대 가구양식이 두 개이상 복합되어 둘 이상의 기능을 지닌 양식이다. 그 특징은 내부구조와 하단이 장 또는 반단으로 수장품을 접어 보관하는 구조이며, 상단은 긴 공간에 햇대가 걸쳐 있어 수장품을 걸어두는 2중 구조로서 전반기의 장롱은 의

거리장의 구성과 형태가 유사하였으며 입면가구 장식은 면판에 전통 가구 장식 문양으로 투각하거나 화각과 금구장식을 사용하였으며 후반기의 장롱은 상단부에 거울 부착한 형태가 전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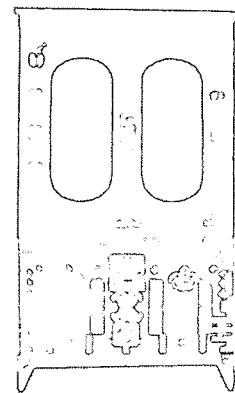
조선시대 이층장의 평균크기(박영순,전정운,1991)는 1070mm, 세로 502mm, 높이 1359mm이었는데,근대 장롱의 평균 수치는 가로 833.6mm, 세로 435.6mm, 높이 1,622mm 이었으며(황봉익,1989), 본 연구자가 실측 조사한 자료에서도 후반기에 나타난 장롱의 경우 가로 935mm, 세로 430mm, 높이 1820mm로 나타나고 있어 전면과 폭이 줄어드는 대신, 높이가 높아진 특징을 보여준다.

장롱의 내부구성은 옷장의 경우 몇 개의 선반을 가로지른 경우, 빈 공간 내에 햇대를 부착하고 하단에는 서랍이 있는 경우, 상단은 이불을 넣을 수 있는 공간과 하단에 서랍을 설치한 경우로 나타나 이러한 내부구성은 전후반기에 공통적인 특징으로 외부형태 변화와 관계없이 이불과 옷을 수장하는 것이 장롱의 주요한 기능이었음을 보여준다.

초기의 장롱은 일본의 영향으로 금구 장식이 커서 번다한 경우도 있었고 모든 면을 가득 채우려는 장식 경향(<그림2>참조)으로 조선시대 기품있는 특색이 사라졌으나(서동석,1991) 조선시대와 달리 화려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시도로 장롱의 입면장식이 다채로웠다.

장롱의 등장으로 기존의 반단이와 농위에 올려 놓았던 이불이 장안으로 흡수되었으며(이진영,1980; 황봉익,1982), 서랍이 설치되고 거울과 유리가 앞면에 부착되어 장 내부의 내용물을 볼 수 있도록 하거나 서서 거울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거울 등 근대적인 재료의 도입에 의해 문판에 유리를 댄 장롱은 처음에 작은 유리설치에 이어 1자 반, 2자 유리로 그 규격이 커졌으며 3자짜리 거울이 달린 장롱은 최신형으로 1930년대 이후에 많이 나타났다(김삼대자,1994). 유리나 거울이 달린 장롱은 상단에 햇대를 걸어 옷을 세워서 걸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단에 반단이나 서랍이 부착되어 주로 안방에서 사용하였고 장롱 내부에는 조선시대 황지를 바른 것과 달리 노루지를 발랐다. 서민층에서 사용한 장롱은 합판을 이용하여 조악한 기술과 재료의 사용으로 내구성이나 전자기구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



<그림 2> 장롱 자료 : 김삼대자(1994 : 122)

장, 의거리장 등 전통가구 양식과의 차이점은 하나의 가구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첨가되는 복합기능을 갖는 점이고 의류 뿐 아니라 이불 등을 수납한다는 점, 전통가구에 비해 장식과 형태가 화려하

2)국어사전에는 장롱의 뜻이 '장과 룡의 총칭'으로 표기되고 있다.

3)장롱의 양식적 특징과 기원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자는 대학과 박물관이 소장하는 근대가구 관련 도록을 살펴보았는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이후로 연대 표기된 가구에는 장롱으로 표기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으며 20세기 이후 제작된 가구도 조선시대 가구로 표기되었다. 그 명칭은 조선시대 장, 룡과 장롱이 혼용되어 있었으며 일반적으로는 문갑장, 탁자장 등으로 '장' 앞에 그 기능을 수식하여 명명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도록을 참고로 하여, 여기서는 연구 논문, 조사자료 및 기타 개인 소장품의 사진자료에서 '장롱'으로 표기된 자료와 면담조사에서 나타난 장롱의 조형적 특징을 참고로 분석하였다.

고 대답하며 입면구성과 구조가 자유롭게 다양하며 높이가 높아져 전체적인 규모가 커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양식은 근대 전반기부터 지방과 도시에서 모두 나타나 새로운 가구 양식임이 조사결과 발견되는데 이러한 장롱은 근대의 시대적 변화 요구에 의해 발생한 양식이었으며 전통가구를 바탕으로 근대에 알맞은 새로운 가구를 추구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표적인 근대가구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의생활의 변화와 가구

개화 이후 한국의 가장 큰 생활 변화는 복식의 변화이었다. 갑신개혁 이후 사회제도의 개혁을 통해 복식에 대한 간소화가 실시되어 신분계급에 따른 복식체도가 폐지된 이후 1895년에는 양복 착용이 허용되어 궁중여성들도 양복을 착용하기 시작하였고 1898년에는 외교관 복장이, 1900년에는 문관복이 구미식으로 개정(유희경,1980)되었다. 또한 이시기 부터 한복의 단점을 지적하고 한복을 개량하자는 논의⁴⁾가 각 신문매체를 통해 활발히 진행되었고(이승희,1984) 한일합방이후, 양복은 남성 뿐만아니라 여성에게도 널리 착용되었다(황의숙,1995). 1920년 왕세자 이은과 방자 여사의 가례는 근대의생활의 변화에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일본식의 혼례에 방자여사는 서양 혼례복인 웨딩드레스를 착용하였으며, 참석자의 경우 후록코트, 모닝코트를 착용하였는데 서양혼례 문화요소로서 웨딩드레스의 전래, 궁중의 양복 착용은 일반인의 의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서양문물의 영향에 따른 의생활의 변화는 지금까지 한복을 위해 의복을 접어서 수납하는 형태에서 서양복식을 위해 걸어 수납하는 방식의 가구가 요구되었다(신영식,1990). 그러므로 장롱은 근대초기 제도화된 양복의 수납과 규모의 양적 요구에 따른 결과라 하겠으며 조선시대 남성용 사랑방 가구인 의거리장의 옷을 걸쳐두는 기능성이 장롱의 구조와 형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근대 후반기인 1940년대 의복의 변화는 세계대전이 진행됨에 따라 간단복⁵⁾이 보급되고 몸빼가 일상복화되었는데(황의숙,1995), 근대 전반기의 양복 착용으로 인한 새로운 장롱 양식은 근대 후반기의 양복이 일상복화 됨에 따라 특히 도시의 서민층에게 새로운 의복 수장의 공간 요구가 커졌다. 이에 따라 의복과 이불을 별도로 수장하는 기능 분화가 이루어져 장롱은 이불장, 옷장, 서랍장으로 세분화되는 요인이 되었다.

4. 목가구 산업과 가구

한일합방 이후 일본의 시장경제정책에 의해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가구제작을 위한 관청 수공업체제가 민간 수공업체제로 전환되었고 가구의 상품화와 주문생산제가 시작(서동석,1991)되었다. 근대의 가구제작소는 일제총독부와 일본인 경영자에 의해 전통가구 양식으로 공업전습소와 미술품제작소로 운영되었다.

4)언론의 계몽에 영향을 받아 장옷 폐지와 함께 의복개량안이 제시되었다. 의복개량안에는 개량한복이나 양복으로 할 것을 제시하며, 저고리는 길며 치마는 통치마로 짧게하며 색은 동색을 사용하고 사치하지 않을 것을 제시하고 있다(조효순,1986).

5)기본형의 원피스를 의미(황의숙,1995).

초기의 목가구 산업은 미미하였는데, 전통주거양식이 유지되는 지방과 서민층을 위한 가구제작은 주로 전국에 산재한 목수들에 의해 간단한 생활도구를 중심으로 주문에 의해 전통가구 양식으로 제작되었고 공구들 역시 수공업장으로 소규모로 제작, 생산하여 그 지역의 수요를 담당하였다.

목가구 산업은 근대 전반기에 비해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였는데(신용하외,1995), 그 이유는 시장산업을 추구한 기업화의 현상과 이로 인한 사회적 생산력의 확대 및 재료의 발달등에 기인하기도 하였지만, 혼수로 사용된 혼례가구의 보급과 품목의 다양화에 의한 변화 추이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1932년 鮮展에서는 공예부를 신설하여 미술작품으로서 공예작품을 응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예부 신설은 미술작품으로서 공예의 근대적 의식을 사회적으로 보편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예품으로 가구는 입상을 위해 일반적으로 일본인의 취향을 따르는 경향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본문화가 우리 공예의 흐름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한국 전통가구의 발전을 위한 전개나 추구는 활발하지 못하였으나(이진영, 1980) 전체적인 전통성은 잃지 않은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근대가구는 시장 산업을 추구한 조직적인 기업화 현상과 창조적 공예미술의 두가지 양상이 특징이다. 이러한 양상은 근대가구 양식을 선도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가구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시장산업을 추구한 조직적 기업화 현상의 결과로 대표적인 것은 나전칠기 가구이다. 나전칠기 가구는 한국인보다 일본인의 선호 결과로서, 일본인에 의해 수집, 개발되었고 많은 나전칠기 가구가 일본 상인들에 의해 생산되어 수출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인의 취미에 영합하게 됨에 따라 한국가구의 일본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1975). 나전칠기 가구의 제작은 주로 통영지방에서 이루어졌으나 재료의 구입과 수공업에 의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생산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또 가격이 고가이므로 나전칠기 가구는 일본인이나 일부 상류층의 가족을 위해 제공됨으로서 고가품으로 인식되어 나전칠기로 제작된 장롱은 일부 상류층에 한정되었다.

근대 후반기에는 산업화의 영향으로 새로운 재료와 거울의 보급에 의한 외래가구 영향이 근대가구 양식에 큰 변화를 주었다. 1936년에 합판이 보급됨으로서 신재료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거울의 보급으로 인하여 가구의 복판에 유리를 부착하고 초화문 등 간단한 문양을 새겨 넣으며 금구장식이 화려해지며(박갑년,1988) 크기가 커지는 대신 둔탁해지고 정교함이 떨어지는 특징이 나타났다. 형태에 있어서는 서랍을 과도하게 사용하였고(신영식,1990) 서양의 영향에 의해 전통의 상자형의 기본틀에서 탈피한 새로운 외형을 가진 가구도 등장하였다.

이 시기에 사용된 장식은 정교한 조각장식이 사라지고 목가구에 금구장식과 간혹 나전 문양이 시문되었으며 판재를 오려 장식을 새겨 붙이는 기법 등으로 정교함이 뒤떨어지고 표현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특징이 있다. 경제적 피폐로 근대 후반기에 서민층은 실용주의적 신

재료의 장식을 적용한 단순한 유형의 가구를 구입⁶⁾하였다.

그러므로 근대 목가구 산업의 발달은 정교함과 전문성이 결여되는 반면, 상류층 가족의 경우 주로 일본색이 강하나 창조적 공예미술 가구가 채택되었고, 서민층은 상업적으로 생산된 단순하나 실용주의 가구가 제작, 사용되었다. 그러나 향촌의 경우 주변의 목수에 의해 주문 제작되어 전통가구를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생산되었다. 따라서 근대가구산업의 발달은 가구제작의 다양성으로 계층별, 지역별 구입에 차이가 나타났다.

5. 여성 가치관의 변화

근대에 이르러 신분개념이 직업개념으로, 상전과 하인에서 지주와 소작인으로 바뀌고 노비가 해방되는 과정에서도 가부장적 대가족제도 이념은 농촌과 같이 정체된 사회에서는 제도적, 법적 뒷받침이 없어도 전통 사회 규범의 유습이 남아 전통적 가족규범이 일반적이었다(홍형욱, 1986).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夫婦有別, 男尊女卑'의 규범이 그대로 영향력을 잃지 않았는데 이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가부장적 가족정책⁷⁾을 펴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의 안정된 가족의 일부 여성은 노동과 육아를 병행하는 농촌이나 도시의 임노동 여성과 달리 가정관리자로서 생활하였다. 이들은 결혼을 시집이라는 가족 집단보다는 능력 있는 한 남성과의 결합으로 간주하여 근대적 직장을 가진 능력있는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들을 잘 기르는 일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 그러므로 도시의 중상류층의 부유한 가족의 부부관계는 남성=바깥 노동, 여성=자녀 교육이나 가정 관리자로서 생활하게 됨에 따라 현모양처를 지향하고 편리하고 능률적인 가사에 대한 관심과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는 가사의식의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여성가사 전담의식의 변화는 생활의 편리와 기능성과 장식성을 도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상류층의 가족이나 새로운 생활양식을 선호하는 가족에게 한정된 것이었다.

계몽에 의한 여성교육과 경제활동 참여의 결과, 근대여성의 초혼 연령이 높아졌고 여성의 미에 대한 의식도 크게 높아지게 됨에 따라 화장품이 일반에게 보급되고 혼수에 화장품이 등장하였으며 조선시

대 상류층에서만 사용되던 거울이나 경대가 서민층에게까지 사용이 넓어져 화장품을 진열하듯 올려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선반을 가진 화장대가 등장하였다.

이 시기 화장대는 오늘날 화장대의 기원이 되는 문갑 위에 큰 거울 장착한 구조가 나타났으며(전완길 외, 1995) 유리 거울의 보급으로 상류층에서는 체경이 유행하였는데 몸 전체를 비춰 볼 수 있게 되었고 거울 양측에 문을 달아 여닫게 만든 삼면경이 특징이다.

여성가치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근대는 유교사상에 입각한 남녀 차별과 여성이 재산상속에서 제외되는 관습이 그대로 남아있어 실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았다. 그러므로 근대사회에서 결혼한 여성의 첫 번째 의무는 자녀 출산, 특히 남아 출산으로 다산주의의 가치와 함께 남아 출산은 절대적 의무가 되었다. 따라서 전통사회의 가치관은 지속되었으며 전통사회와 다른 차이점은 다남보다 남아 선호와 혼인생활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가구에는 이러한 염원이 문양으로 담기게 되는데, 근대의 문양은 크게 전통 장식문양과 일본 등 외국의 장식문양이 있으나 전통장식 문양이 주로 사용되었다. 가구에 사용된 문양은 초화류 등 자연형에서 따온 것, 문자형을 발전시킨 것, 기하학적인 것과 문양이 없는 경우이며(김정필, 1988) 서민층에서는 전통가구에 초화류를 자개로 한 두점 시문한 경우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특히 한자의 형태를 문양으로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수壽, 부富, 귀貴, 다남多男, 강녕康寧 등이며 한자의 뜻은 도교적 사상으로 호운, 길조를 염원하는 표현으로 혼례가구에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장식은 혼인생활의 행복을 추구하는 혼례가치관을 표현해 줌으로써 가구는 생활의 도구 뿐 아니라 혼인의 상징성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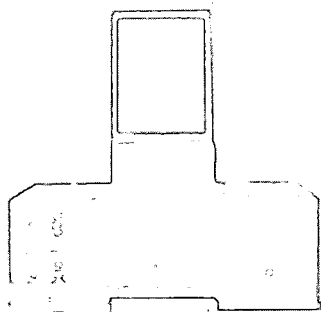
상류층에서 사용하는 나전칠기가구의 문양은 주로 십장생, 구름과 학, 봉황, 천도, 모란 등을 시문하였으며 백수백복百壽百福의 한문을 문양으로 사용하였고 전통가구인 경우, 취벽칸과 동자에도 문양을 시문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양의 사용은 개항이후 비록 가구에 주술적 민간 신앙적 요소는 약화되었으나 부, 귀, 남아선호의 현세적 가치관은 지속되어 장식과 모티브를 통해 근대가족의 염원과 욕구를 표현하였다.

6. 도시화와 새로운 주거유형의 출현

근대 주택은 19세기 중엽 개항과 개화사상으로 인해 외래 건축양식이 전파되었는데 개항장의 일본식 주택과 서구제국의 세력확장으로 양식주택이 건립되었다. 외래 건축 문화의 영향은 왕실과 귀족계층에 의해 먼저 도입되었으나 우리나라 전통주택이 변모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 이후 부터이다.

근대에 도시의 공업화로 인한 농촌인구의 도시 집중에 따른 주택 수요가 급증하였고 새로운 주택형태로 서민 주택인 집장사들의 개량한옥과 일부 건축가들의 개량주택안들이 선보였다. 1921년에 건축된 주택의 통계치⁸⁾에 의하면, 한식주택이 평균 12.5평, 일본식이 19.5평으로서 당시 주택의 협소함을 보여준다(홍형욱, 1986). 이로 인해

8) 이때 건축된 주택은 일본식 집이 875동으로 17,208평, 조선주택이 498동으로 6240평이라고 하였다(홍형욱, 1992: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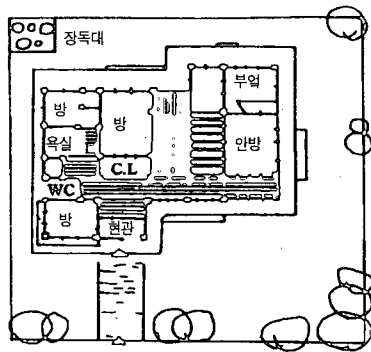
(그림 3) 좌식형 화장 자료: 이순우(1991:127)

6) 면담 조사자중 소유한 가구의 문양 유무와 장식의 많고 적음을 묻은 결과 문양이 없거나 장식이 없는 가구 구입이 70%로 가장 많았다.

7)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 1912년에는 조선민사령 제11조에 의해 여성을 상속에서 제외하는 관행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였다. 이후 조선민사령의 기본 원칙은 1960년 민법전의 개정까지 지속되었다(이민우, 1976; 김모란, 1995:16).

주택내 기능적 변화가 요구되었으나 과거와 달리 도시주택은 한정된 토지와 밀착되어 극도로 분화, 발전되었다. 사랑방이 쇠퇴하기 시작했으며 주택 내부공간의 협소함으로 안방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고 다락의 폐지와 반침설치 등 평면의 변화로 인해 전통주택에 다락이나 옷방을 활용하여 수납문제를 다목적으로 처리⁹⁾했던 지금까지의 생활양식이 변화하게 되었다. 즉 전통생활의 다락이나 옷방이 큰 규모의 수납품을 담당하고 소규모의 가구로서 잡다한 수납품을 정리하는 방식에서 이동식 가구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으므로 가구의 중요성도 커지게 되었다.

전통주택의 다락과 옷방에 비해 새로운 주택의 반침은 수장 규모가 훨씬 적었으므로 근대 도시 주택(〈그림4〉참조)에서의 수납공간의 부족을 야기시키게 되었다.



〈그림 4〉 조선풍 일등당산안(오영섭)
자료 : 주남철(1970:14)

사계절이 뚜렷하여 많은 수장공간이 필요한 우리나라의 주택에 이와같은 변화로 인해 도시주택은 대형 수납가구의 요구가 증대하였다.

수장공간의 부족과 주택 내부 공간의 협소는 공간의 효율성을 위한 다목적, 기능성이 요구되었고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가구는 대형화되고 다목적 기능을 위해 내부구조도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근대 후반기에는 다양한 가구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도시화로 인해 핵가족 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생활과 신혼살림에서 혼례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며 다목적 수장가구인 장롱의 마련이 필수적이게 된 동기가 되었다.

근대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유교사상의 내외지법은 1930년대 이후 퇴색하게 되었는데 이는 도시를 중심으로 일본과 서양의 영향을 받은 주택 변화와 관련이 있다. 즉 남성용 공간인 사랑방의 쇠퇴로 안방은 지금까지 부인을 위한 공간에서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기능과 역할이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안방은 전통사회에 비해 더 많은 기능과 역할이 요구되었고 조선시대 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 제작되어 안방과 사랑방에 각각 배치되었던 것과 달리 근대 가구는 그 구분이 사라지고(황봉익,1989) 필요 기능에 따라 제작되어 주로 안방의 한벽을 차지하여 일렬 배치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대표적인 가구는 의거리장으로써 의거리장은 사랑방에 놓이는 조선시대 남성용 의복수장가구¹⁰⁾이었으나 근대에 와서

9)전통주택에서 옷방은 안방위에 붙은 방으로 이 옷방안에 장롱과 농을 배치하고 그 위에 이부자리를 올려놓아 사용하는 일종의 대형 수납공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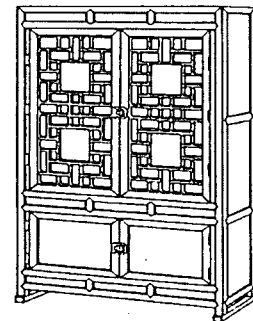
는 여성을 위해 안방용으로 제작되었다.

내부에 햇대가 있어 관모나 옷을 걸게끔 설계된 의거리장은 전면 내부가 빈 공간으로 구성된 의거리장과 하단에 장이나 반단이가 부착된 의거리장이 있어 이를 의침장衣枕藏, 자릿장이라 불렀다.

근대의 의거리장은 전면에 내부가 빈 공간으로 구성된 의거리장의 경우 햇대가 있어 오늘날의 옷장과 같은 구조인 경우와 축널이 설치되어 있어 의류를 층층이 넣을 수 있는 구조가 있어(박갑년,1988) 양복과 한복 등 근대화로 인해 다양해진 수장품을 고려한 여러 내부 구조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거리장은 장롱의 새로운 양식에 영향을 주었고 초기에는 장롱과 함께 근대 전반기에 주로 나타났다.

근대 전반기에 주로 발견된 안방용 의거리장은 살의걸이로 문판에 아자나 불자형의 살창을 하고 장의 내면과 살에 한지나 비단을 발랐으며, 살창에 꽃그림을 그린 의걸이장의 경우, 화초장이라 불렀다.



〈그림 5〉 근대의 안방용 의거리장
자료 : 황봉익(1989, 앞의책:55-73)

이와 같은 의거리장은 남성용 물품까지 수납해야하는 안방의 기능 변화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과 향촌에서는 전통주택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므로 생활양식의 변화가 크지 않았으므로 내외지법이 지켜지고 있었다. 가구나 기물은 그 기능과 형태에 있어 건축물의 유형에 대응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과 도시주택의 특징에 따라 외형적으로 장, 농 등 전통가구양식의 지속적 사용과, 새로운 건축물에 대응하여 나타난 새로운 가구 양식 등장의 두가지 흐름이 공존하게 되었다. 전통가구의 사용에도 근대의 전통가구 양식은 조선시대의 그것과 차이가 있다.

근대의 전통가구 양식의 차이점은 첫째, 종류가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장의 경우 수납하는 물품에 따라 버선장, 솜장, 이불장, 원양장 등으로 불리웠으며(박갑년,1988), 장의 하부에 탁자를 설치하면 탁자장으로 불리는 등, 다양한 기능과 수납물품이나 외형의 특징에 따라 구분되었다는 점이 조선시대와 달리 다양성이 증가하였음을 나타내준다.

둘째, 근대의 전통가구 양식은 크기가 확대되었으나 외형인 전통양식의 입면구성은 시각적으로 큰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특히 장이나 농 등 수장가구의 경우, 폭이 좁아지고 높이가 확대되었

10)사랑용 의걸이장은 문짝의 형태에 따라 평의걸이, 살의걸이로 분류되는데 평의걸이는 목리문을 살려 만들거나 시커나 사군자를 문판이나 옆널판에 음각한 간소한 의장이며 전면을 한지로 바른 지장 의걸이장과 함께 사랑용으로 쓰였다(황봉익,1989:79-80).

으나 전체적인 비례체계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입면의 세로 길이의 확대를 통해 넓어진 입면구성의 면분할 사이에 서랍 등을 설치하여 기능성을 향상시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내부공간의 확대와 편리성의 증대를 이룩하였으나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전면 구성은 유지되므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향촌인 하회마을의 근대가구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8사례 중 7 사례가 전통가구인 장, 룡, 함이 차지하였다. 실측 조사에 의하면 (<표-3>참조) 조선시대 장, 룡에 비해(박영순외, 1991:1033×470×1085mm) 평균 크기가 985×482×1601(mm)로 폭이 줄어들은 반면 높이가 높아졌고 거울 등 근대적인 재료와 장식을 사용하였으며 마대가 단순해진 변화이외에 외형의 시각적인 변화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2> 하회마을의 근대가구

NO	분류	소유자	구입년도	크기(mm)	입면구성	장식
1	이층장	고수환	1920	1020×444×1530	서랍설치, 직선형마대	백동장식
2	단층장	고수환	1920	957×525×979	직선형마대	백동장식
3	이층장	정위주	1910	932×420×1350	직선형마대 상단 문짝4개	백동장식 거울자개장식
4	이층장	엄수분	1945	958×435×1535	직선형마대	백동장식, 거울부착
5	이층능	김수갑	1910	832×430×1086	조선시대 양식과 유사	백동장식
6	이층능	정위주	1910	827×386×1180	조선시대 양식과 유사	백동장식
7	함	김수갑	1910	584×310×240	조선시대 양식과 유사	옷걸이 동근경첩
8	장롱		1940	1040×477×2000	하단서랍부착, 쌍접이의 여닫이문	2짝 거울문, 장 식문양을 덧댐

<그림6>의 근대와 조선시대 이층장의 양식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두 양식의 외형이 유사하고 시각적 전면구성의 비례가 유사하나 근대의 경우 폭이 좁고 높이가 높으며 서랍이 이열 배치되고 상단에 네쪽문과 거울을 설치하여 기능성을 강조해 준 차이를 보여준다. 근대가구 양식은 이와 같이 전반기의 소극적 변화와 달리 후반기에 들면서 점차 적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장과 옷장의 겸용 등 형식에 제한 없이 자유로운 입면구성과 다양한 기능성을 겸용(<그림1>참고) 한 것이 특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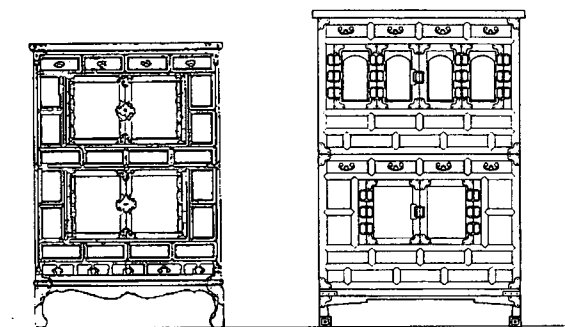


그림 6) 조선시대 이층장과 근대의 이층장
자료: 박영순외(1991), 하회마을 정위주씨댁의 이층장

셋째, 전통가구 입면장식의 통일성이 감소되었다. 지금까지 장은 외부에 여닫이 문이 달려있고 머름간, 쥐벽간, 복판 등으로 분할되어 통일적인 비례를 보여주었으나 근대 전통가구 유형은 기능추가, 크기 확대나 장식의 강조등의 이유로 대칭 비례에 큰 변화는 없으나 반복적인 면 분할에서 보여 주던 통일성이 줄어들게 되었다.

7. 기거양식의 변화

개화기 이후 왕실의 근대화는 양복의 도입으로 의생활과 복지의 변화와 함께 서구식 건축물이 건축¹¹⁾됨에 따라 서구적 생활양식과 침대, 의자, 책상 등이 수입되어 사용되었다(이진영,1980). 이러한 영향은 주택에서 입식의 생활양식이 나타나게 되었다(홍형옥,1992). 서구적인 생활양식과 입식 가구의 도입은 일부 왕족과 상류계층에 국한되었으며 서민층은 재래의 좌식생활양식이 일반적이었다.

생활양식 서구화로 입식화 경향이 진행되었음에도 단지 안방은 좌식화가 지속되고 여전히 주된 사회공간이며(송민영,1987) 주택내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기거 양식의 변화에 대응하여 나타난 근대의 대표적 가구는 화장대이다.

화장대는 조선시대의 좌경과 경대가 발전된 것으로 상자형의 소형 가구이었으나 근대에는 전체적인 규모가 커졌으며 기거양식의 다양화에 따라 평좌생활에 편리하게 개량된 형태와 외래양식의 영향을 받은 입식형으로 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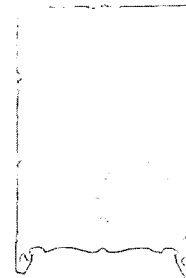
그러므로 근대는 공예적 기술전수로 만들어진 전통 형태의 경대와 더불어 의자식 화장대, 좌식생활에 맞게 개량된 좌식형 화장대 등 3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송호정,1989). 가장 대표적인 화장대(<그림3 참조>)는 평좌식으로 대개 1단 또는 2단의 서랍을 두어 화장용구를 수납하였으며 거울의 보급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전완길,1987)하였는데, 장식은 목재의 무늬결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나 경대와 달리 화장대의 금구장식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Ⅳ. 근대가구 양식의 특징

지금까지 근대가구의 양식적 특징을 종합하여 조형요소를 조사한 결과 근대가구 양식은 크게 기능 확장식 가구 유형과 절충식 유형의 두가지로 구분되었다.

1) 복합 확장식 가구

이 유형은 전통가구인 장, 능, 반다지를 필요에 따라 복합한 구조와 전체적인 규모 확대하여 기능성을 향상시킨 근대화된 전통가구이다. 복합적인 구조는 농위에 장을 엮은 형태이거나 반단이 위에 장이나 룡을 엮은 형태등 하나의 전통가구 유형에 다른 기능이 덧붙여진



<그림 7> 삼층반단이상
자료: 이종석, (1993.상:169)

11)현 비원의 왕실미술관은 프랑스 로코코 양식이며(이경성,1974), 덕수궁 석조전은 르네상스식으로 영국인 '로벨'에 의하여 1909년 건축되었다. 석조전은 건물의 외관이 영국식일 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영국식의 특징을 갖고 있다.

구조를 갖거나 전통가구의 기본 유형에 비해 크기가 수평, 수직적으로 확장되어 대형화되고 내부에 기능성이 부가된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은 주로 근대 전반기에 등장(박갑년, 1988)하였고 주로 지방에서 제작된 가구에 많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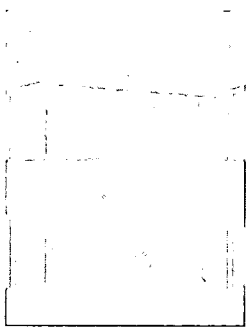
2. 절충식 가구 유형

외래문화 유입으로 인한 건축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의해 전통가구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비례와 비대칭적 구성이 나타나는 등,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외래가구의 영향으로 변화의 양상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양상은 일본, 중국과 서양의 영국 프랑스 미국의 영향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근대 가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양식은 일본과 서양식의 두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주로 도시지역 거주자에게 발견되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한일 절충형

한일 절충형은 일본가구의 특징인 가구 천판(윗부분)의 끝이 올라가는 특징이 나타나고 대칭적인 한국 전통가구의 균형과 상반되는 특징이 있다. 즉 전통가구는 높이가 낮고 폭이 넓은 비례를 갖는데 비해 일본식 가구는 높이가 높고 폭이 좁은 비례를 갖는다. 또 가구 모서리의 테두리에 연속적인 문양을 시문하고 전통가구가 선반이 평행하게 제작되는 반면 완곡된 형태를 가지며 가구 전면에 개방공간이 많은 특징(이진영, 1980)을 갖는다. 특히 이러한 유형은 근대 후반기에 널리 나타났는데 공통점은 전통가구 양식을 바탕으로 기능성이 부가된 변화유형이며 비대칭형 등, 가구 구성이나 입면 구성이 자유롭게 시도된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일본식이 가미된 유형은 일본식 디자인 요소가 가구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근대 생활양식에서 요구되는 실용주의에 따른 다목적, 다기능성을 수용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보다는 전통가구의 일본화 경향에 의한다고 하겠다.



(그림 8) 한일절충형
자료: 조선공예전람회도록(1992: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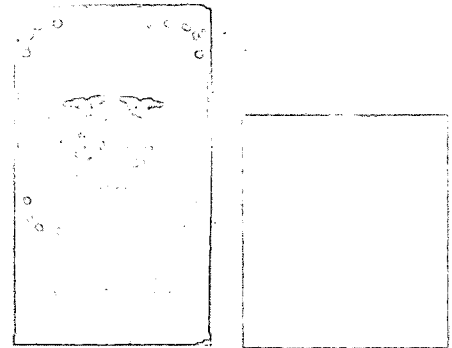
전통가구의 일본화 경향은 선전 등의 영향이 매우 컸다. 그러나 해방이후 일본 경향의 가구는 큰폭으로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전통가구의 일본화 경향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치하에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일본의 영향을 받은 가구유형은 전통가구 유형에 둔탁하고 큰 금구 장식을 사용하거나 나전문양과 장식을 사용했으며, 일본식 가구 형태에 전통장식이 부착된(신영식, 1990) 형태로도 나타났고 공통적으로 기법이나 정교함이 뒤떨어지고 세련되지 못한 특징이 있다.

(2) 한양 절충형

1930-1940년대 이후 근대가구는 기능성이 강조된 보다 단순한 가구나 입식형의 가구가 등장하였는데 이는 서양가구의 실용주의적인 기능성을 모방하여 나타난 변화(이진영, 1980)라 하겠다.

개항 이전부터 왕족과 귀족계층에 의해 서양에서 가구가 직수입되었는데 이러한 서양가구가 일반에게 직접적으로 보급되지는 않았으나 근대 후반기부터 서양식이 가미된 가구가 제작되었다. 이러한 가구는 주로 프랑스와 영국 및 미국의 가구 양식이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근대가구는 가구에 곡선 요소가 도입되거나 장식을 최소화하며 목재의 무늬목을 살린 단순한 대형가구로 전면부가 두쪽 여닫이 문으로 구성되는 경우와 미닫이 방식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은 전쟁으로 인한 물자부족, 가구 제작 및 기술 부족으로 근대 후반기 서민층을 위해 기능성이 강조된 합판 사용의 값싼 가구 보급에 기여하였다. 면담 조사에서 근대 구입된 가구의 70%가 대형 가구인 장롱으로써 여닫이 문과 서랍을 갖춘 장식 없는 단순한 유형으로 밝혀져 서양 양식의 기능적인 구조는 복잡한 구성의 일본형보다 서민층의 실용주의적 요구를 잘 수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러한 특징이 우리의 정서¹²⁾에 더 맞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9) 한양절충형
자료: 신영식(1990:27)

V. 결론

지금까지 고찰한 바를 종합해 볼 때 근대가구 양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의 가구는 수장기능의 확대와 실용주의적인 편리한 기능성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중시되었으므로 전통가구 중 수장가구의 변화가 가장 크다고 하겠다.

둘째, 근대의 대표적인 가구는 장롱, 의거리장, 장과 화장대라고 하겠다. 이러한 가구의 변화 요인은 혼수규범의 증가로 인한 혼례가구의 보급과 사치성 내구재로써 실내를 꾸며주는 장식성의 의미가 중시되었기 때문이다. 미를 중시하는 근대 여성의 가치관으로 인해 화장대가 나타났고 의생활과 주거생활의 변화로 인해 수납 품목의 증가, 다양화함에 따라 가구의 대형화와 여러 가지 기능의 수장 가구로

12)해방이후에 서구적 양식의 현대적 감각이 나는 가구가 88%(이진영, 1980)로 나타나 근대 전반적으로 일본의 양식이 보급되고 제작되었음은 식민치하의 영향이 컸음을 알 수 있고 해방후 단순한 형태의 현대적 감각의 서양가구가 급속히 증가하였음을 통해 편리한 기능성과 단순한 조형성의 선호라고 볼 수 있다.

발전하였으며 가구 산업화로 가구 품목이 세분화되었다.

둘째, 장롱은 근대 초기 서양문물의 도입과 혼례가구의 보급에 의해 발생된 새로운 양식이다. 즉, 장롱은 양복 수납의 필요성에 의해 나타났으며, 한복이 접는 방식에 의해 보관되었던 데 비해 세워져 걸 수 있는 내부기능과 수장공간을 증대시키기 위해 높이가 확장된 특징을 갖는다. 장롱은 그 양식적 특징이 전통가구를 바탕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에서 근대사회의 변화를 상징하는 가구로서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금까지 '창과 룡의 총칭'으로 왜곡된 장롱의 의미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근대 가구 양식은 조선시대 이래 전통 생활양식을 유지하는 지방과 향촌의 가족에 의해 근대적인 전통가구의 복합, 확장식의 근대적으로 변용된 가구가 사용되었다. 도시에서는 전통가구에서 발전된 새로운 가구의 출현과 일본, 중국, 서양 등 다채로운 가구양식이 절충된 가구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근대가구 양식은 다양한 기능성과 규모 확대, 자유로운 입면구성, 외래장식의 영향을 들 수 있고 전통가구의 기능 복합과 확장 및 새로운 가구 양식의 출현이 그 특징이라고 하겠다.

넷째, 일본영향이 큰 절충형의 가구는 근대 후반기(이진영, 1979)¹³⁾에 상류층을 중심으로 널리 보급되었으며 작품성이 강한 특징이 있다. 서민층에서는 기능성이 우선되는 단순하고 소박한 형태로써 서양식이 가미된 유형이 구입되고 근대화된 전통가구 유형이 향촌을 중심으로 마련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근대가구의 장식은 수, 부, 귀, 다남과 혼인 생활의 행복을 상징하는 문양이 나타났으며 고급가구 일수록 많은 장식과 문양을 자유롭게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징은 백동장식의 사용, 자개와 거울 부착이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근대가구 양식은 일본 등 서구의 영향과 간섭이 지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통가구 양식을 바탕으로 근대적인 가구 양식으로 발전시키고자 한 노력으로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대가구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근대가구의 연구로 사라져가는 근대가구의 유구를 발굴하여 근대가구 양식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락대용, 1984, 『고려나전칠기 연구』, 서울:미진사.
2. 국립중앙박물관, 1992, 『조선시대 문방기구』.
3. 권 장, 1991, 현대 장농의 디자인 연구 -1980년대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산업미술학과 석사학위 논문.
4. 김기주, 1992, 조선시대 중기 이후 반가의 공간사용과 평면형식에 미친 가구의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 논문.
5. 김민진, 1988, 조선시대 목물 문양에 관한 연구 -나전칠기와 화각문양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응용미술학과 석사학위 논문.
6. 김삼대자, 1994, 『전통목가구』, 서울:대원사.
7. 김성희, 1996, 가정기기 도입에 따른 가사노동의 변화 -현대과학기술에 의해 생산된 가정기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이동학과 박사학위 논문.

13) 1930-40년대 선전에서 일본 형태를 따른 가구는 70%로 나타났다(이진영, 1979).

8. 김영태, 1982, 조선조 여성용 목공가구에 관한 연구 -장농 반다지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응용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9. 김원룡, 1980, 『한국 미술사』, 서울:범문사.
10. 김정근·홍형욱, 1996, "혼례변화에 따른 혼수기물과 혼례가구의 변천 I -고대이후 조선시대까지-",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1호: 1-14.
11. 김정필, 1988, 조선시대 목물 문양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응용미술학과 석사학위 논문.
12. 김태순, 1983, "안방용 수납가구의 양식과 그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인하공업전문대학 논문집 Vol.9: 181-189.
13. 민 경우, 1995, 『디자인의 이해』, 서울:미진사.
14. 민속박물관 학술총서, 1988, 『구례 운주루』, 국립민속박물관 진라남도, vol.4.
15. 박갑년, 1988, 현대가구의 의장 분석 -안방 목제가구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산업미술학과 석사학위 논문.
16. 박영순·강희수, 1992, "조선조 가구 중 농에 나타난 의장요소의 분석", 연세대학교 생활과학 연구소 생활과학논집 제6집: 157-173.
17. 박영순·전정윤, 1991, "조선조 가구에 나타난 의장요소의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29권 2호: 87-120.
18. 배만실, 1975, 조선 후기 목공가구의 일연구 -면적성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장식미술학과 박사학위 논문.
19. 배만실, 1988, 『한국 목가구의 전통양식』,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 배연희, 1982, 조선조 여성용 목공가구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응용미술학과 석사학위 논문.
21. 서동석, 1991, 한국 목가구 디자인에 관한 연구 -조선시대 가구 특성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산업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가구디자인 전공 석사학위 논문.
22. 송호정, 1989, 한국 현대 화장용 가구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산업공예과 가구디자인 전공 석사학위 논문.
23. 신영식, 1990, 근대이후 한국 가구의 양식 변천에 관한 연구 -가정용 목제 수납가구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공예디자인과 목공예전공 석사학위 논문.
24. 신용하·이정옥·문소정의, 1995, 『한국사회의 이해』, 서울:문학과 지성사
25. 위폐제, 1985, 『한국의 미 24, 목칠공예』, 서울:중앙일보사, 1985, 『국보 5』, 서울:예경산업사.
26. 유종림저, 양홍렬·이승창역, 1991, 『증보산림경제』, 민족문화추진회.
27. 윤복자·최형선·이선미·이수진, 1990, "한국주거형태 변천과정에서 본 주거학의 생태학적 개념정립", 대한가정학회지 제28권 3호: 67-85.
28. 이종석, 1986, 『한국의 목공예 상 풍토·재료·역사』, 『한국의 목공예 하 목공기구 사진자료편』, 서울:열화당.
29. 이진영, 1980, 개화 이래 한국 전통가구의 양상과 변천에 관한 연구 -국전과 선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응용미술학과 석사학위 논문.
30. 임승택, 1987, 선전과 국전을 통한 목칠공예의 조형성 변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공예과 목공예전공 석사학위 논문.
31. 임영주, 1983, 『한국문양사』, 서울:미진사.
32. 전완길외8인, 1988, 『한국 생활문화 100년』, 서울:장원.
33. 정 석, 1993, 불박이 가구 디자인에 관한 연구 -나전칠기 가구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석사학위 논문.
34. 정명호, 1991, 『한국 전통공예의 세계시장화를 위한 연구』, 한국문화예술킨용원 문화발전연구소.
35. 주남철, 1970, "이조말부터 1945년도까지의 한국의 주택변천", 대한건축학회지 제14권 38호: 9-15, 진주태정민속박물관 『조선시대 가구장식문양집』
36. 천병욱, 1981, 『한국전통의장자료』, 서울:보신재.
37. 최순우·박영규, 1981, 『한국의 목칠가구』, 서울:강미출판사
38. 한국사회사연구회, 1990, 『한국사회의 여성과 가족』, 서울:문학과 지성사.
39. 홍형욱, 1992, 『한국 주거사』, 서울:민음사.
40. 황봉익, 1989, 조선조시대 의결이 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공예디자인과 목공예전공 석사학위 논문.
41. 황의숙, 1995, 한국여성 전통복식의 양식변천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접수: 1997. 10. 30)